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정 기 선 (Chung, Ki-seon) *

(e-mail : kschung@gfwdi.or.kr)

논문접수일 : 2008년 8월 20일

논문심사일 : 2008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9월 25일

* 학위취득대학 :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현직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개발실장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신국적에 따라 한국인과 국제결혼하는 과정부터 결혼유형 및 한국이주과정, 그리고 이주 후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밝힘으로써 그들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추이와 지역별 거주현황을 살펴보았으며, 2006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810명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과정과 한국생활적응에서의 출신국적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으로 혼인이주역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과 중국 조선족 여성들이 가장 길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필리핀, 태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 순으로 국내에 혼인이주해오기 시작했다. 결혼이주여성의 60%가 중국출신이며, 70%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일본여성의 경우, 혼인유형이 일반적인 한국인끼리의 혼인형태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중국 조선족은 결혼연령이 높고 재혼율도 높은 편이다. 반면에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 남편과 나이차이가 크고 부인은 초혼이고 남편이 재혼인 경우가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많은 편이다. 부부관계 만족도는 일본 부인과 필리핀 부인이 가장 낮고 중국 한족 부인이 가장 높은 편이며, 친구 및 이웃관계는 일본 부인이 가장 좋은 편이다.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베트남, 필리핀, 중국 한족 부인은 언어문제를, 일본 부인은 자녀양육문제와 경제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적에 따른 한국생활적응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주제어] 국제이주,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한국이민생활적응,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관계.

I. 들어가는 글

2007년 8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백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인구의 2%를 차지하면서(법무부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인종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했다. 민족자부심의 원천으로서 단일민족, 단일문화가 이제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다민족·다인종’의 ‘다문화’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급변하는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여러 사회현상 가운데 드물게 학계,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언론의 관심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급부상하는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국내에 외국인이 장·단기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부터이다. 국내 3D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이 이주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산업연수생제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도로도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미등록 취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동자로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해오고 있다. 거의 20년 가까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들은 조만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로 생각했고,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이들의 수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규제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 조선족,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남아시아 여성으로 급격히 확대되면서, ‘다민족·다문화’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처럼 ‘잠시 머무르다 돌아갈 일시이주자’ 아니라 ‘한국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며, 이들이 낳

은 자녀는 한국사회를 이끌고 갈 차세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관리와 통제’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이제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단일민족, 단일국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국민통합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민족·다인종사회에서의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공존과 화합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외국인 정책의 변화에서도 분명히 읽혀지는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와 같이 정주외국인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¹⁾ 정부는 2006년 5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즉,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방적 이민허용, 질 높은 사회통합정책의 실시, 질서 있는 국경관리 및 외국인 인권옹호를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2007년 7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이주여성 지원활동을 펼쳐오던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 단체에서는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조사하여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위훤 2003; 이금연 2003; 석원정 2004; 박현정 2004). 특히 국제결혼 여성들이 당하는 가정폭력, 차별과 학대,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부재로

1) 2007년 7월 현재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72만4천967명이며, 산업연수생이 56%(40만4천51명), 결혼이민자 14%(10만4천749명), 외국인유학생 7%(4만7천479명)이다. 결혼이민자는 2002년 3만4천여명에서 2007년 10만4천여명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영주권자도 2002년 6천22명에서 2007년 1만5천567명으로 2.5배 증가하여 정주외국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07).

인한 인권침해와 소외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였다. 다른 한편, 지역 주민으로서 국제결혼 여성들이 늘어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 정부에 앞서 이들의 적응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도내 거주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가족 실태조사를 시작으로(김애령 1998),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내 거주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서영주 2001; 민경자 2003; 박현정 2004; 박재규·이윤애 2005; 한영현 2006; 정일선 2006; 정기선 외 2007; 양옥경 2007), 충청남도나 강원도 같은 지자체에서는 몇 년의 간격을 두고 반복하여 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충남: 민경자 2003; 김영주 2006; 강원도: 서영주 2001; 김은숙 외 2006). 중앙정부차원에서 국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설동훈 외 2005), 이를 바탕으로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이후 정부의 결혼이민자 사업을 총괄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2006년에 결혼이민자가족 뿐 아니라 아동양육실태를 포함하는 전국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으며(설동훈 외 2006), 농림부에서도 농촌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이순형 2006).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주도한 연구들은 정책과 지원사업 도출을 목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 및 시부모 관계, 자녀양육문제, 이웃관계, 언어 및 생활방식을 포함한 문화적응과 갈등, 보건·복지 지원 욕구 등 현상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결혼이주한 중국 조선족과 일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성지혜 1996; 강유진 1999; 홍기혜 2000; 한주연 2002), 최근에는 필리핀 여성, 베트남 여성, 우즈베키스탄 여성 등으로 연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신난희 2004; 윤형숙 2004; 임안나 2005; 하밍 타잉 2005).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가족학, 인구학 등 학계에서 최근까

지 진행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관련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세계체 계론적 관점에서 세계화와 이주의 여성화를 설명하려는 해외 연구 들(Ehrenreich and Hoehschild 2002; Sassen 2002; Piper and Roces 2003; Constable 2003)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여성들의 경우, 노동이주와 결혼이주가 혼재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초국 가적 가족의 등장을 보여주는 연구(이혜경 외 2006), 계급과 민족 의 위계체계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젠더이슈 및 이주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려는 연구(이수자 2004; 한국여성연구원 2004; 윤 형숙 2004), 이주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출신국가별로 한국생활 에서의 다양한 갈등과 적응 문제를 분석한 연구(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 및 사회생활 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오남 2006; 박재규 2006; 김두섭 2008), 국제결혼자의 혼인 및 이혼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한 연구(김두섭 2006)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정책 방향이 ‘관리와 통제’ 중심에서 ‘사회통합’ 을 지향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옮겨가게 된 원인을 규명하려는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6), 한국적 다문화주의를 이론화 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한국사회학회 2007).

이렇게 다양한 연구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축적되었음에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 는 문화접변과 적응 양상을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사회·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은 아직 미흡 하다. 많은 실태조사들이 조사대상으로 다양한 국가출신의 결혼이 주여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출신국가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고 려없이 이주여성집단으로 동질화해서 분석하고 있다. 특정 국가출 신 결혼이주여성을 집중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 사례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다른 국가출신들과 비교분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여성집단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가별로 한국으로의 이주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 추이와 지역별 거주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비교분석이 가능한 대규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과정과 한국이주경험,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사회생활 및 한국생활 적응과정 중에 발생한 정책적 욕구에 있어서 출신국가별 차이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한국에서의 이민생활 적응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경기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정기선 외 2007). 이 조사는 200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경기도내 국제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적별, 거주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확률표집방법을 통하여 표집된 ‘외국인 부인+한국 남편’가족, ‘외국인 남편+한국 부인’가족 및 시부모를 포함한 1,013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외국인 부인 810명의 자료만을 활용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중국조선족 225명, 중국한족 168명, 일본 106명, 베트남 104명, 필리핀 67명, 몽골 56명, 태국 54명이 포함되어 있다.

2006년 실태조사 당시 경기도내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총 18,420명이었으며, 인구 80만이 넘는 4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31.8%,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49.9%, 안산과 시흥의 공단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15.0%이었으며, 4개 군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3.3%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이 도시거주자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2. 분석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90년 이후부터 2007년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 추이를 살펴볼 것이며, 2007년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거주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지역별 거주현황을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앞서 언급한 결혼이주여성 대상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와 국제결혼과정,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적응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 욕구를 분석할 것이다. 한국이주와 국제결혼과정에서의 출신국가별 차이를 보기 위하여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 및 한국거주기간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혼인관련 특성으로 결혼당시 부부의 연령, 부부연령차, 현재 연령, 초·재혼 여부 및 결혼기간을 분석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 적응은 부부간의 문화차이 지각, 부부관계 만족도 및 부부갈등 경험과 그 원인, 이혼고려율 등을 살펴볼 것이며,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가 출신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지도 분석할 것이다. 사회생활적응은 결혼이주여성의 친구 및 이웃관계, 취업활동여부와 취업의사, 한국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어려움 등을 통하여 분석할 것이며, 정책적 욕구는 한국어 교육수요, 한국생활정보 및 교육 욕구, 직업훈련 및 취업욕구, 법률 및 의료 상담 욕구등을 통하여 파악할 것이다.

III.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 추이와 국내거주 현황

1. 결혼이주 여성의 출신국가별 한국인과 국제결혼 추이

최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선진국인 미국출신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1,500여명이 결혼한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이래로 최근까지 200~300명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비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은 그 수가 훨씬 더 많으며, 국내 거주 비율도 높다. 한국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 데에는 통일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통일교는 1960년대부터 해오던 국제결혼사업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세계적인 사업으로 키우게 되었고(김이선 외 2006), 그 일환으로 한국 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혼이 1990년 100여명에서 1992년 1,200여명으로 갑자기 늘어났다(<표 1> 참조). 그 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적게는 560여명에서 많게는 2,300여명까지, 통상적으로는 1,100~1,200여명내외로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교가 1990년대에 국제결혼사업을 확장하면서 통일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주위의 주선을 통하여 ‘축복결혼’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본 뿐 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등 일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에 참여하게 되었다(김이선 외 2006).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0년대 초 농촌의 노총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영농후계자단체나 여성단체, 지자체에서 결혼을 적극 주선하면서 시작되었으며(이혜경 2005), 1990년에 88명이던 것이 1993년부터 그 수가 1,800여명으로 급증하였고, 2003년 이후부터는 13,000여명에서 20,000여명(2005년)

까지 증가하였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1990-2007)

연도	계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캄보디아	미국	기타
1990	619	175	88						268	88
1991	663	224	106						232	101
1992	2,057	1,223	429						249	156
1993	3,109	826	1,851						230	202
1994	3,072	561	2,043						227	241
1995	10,365	1,412	8,450						188	315
1996	12,647	2,370	9,271						228	778
1997	9,266	1,075	7,362						213	616
1998	8,054	1,004	4,688						1,514	848
1999	5,775	1,248	2,883						280	1,364
2000	7,304	1,131	3,586	1,358	95	270	77		235	552
2001	10,006	976	7,001	510	134	185	118		265	817
2002	11,017	959	7,041	850	476	330	195		267	899
2003	19,214	1,242	13,373	944	1,403	346	318	19	323	1,246
2004	25,594	1,224	18,527	964	2,462	326	504	72	344	1,171
2005	31,180	1,255	20,635	997	5,822	270	561	157	285	1,198
2006	30,208	1,484	14,608	1,157	10,131	273	594	394	334	1,233
2007	29,140	1,665	14,526	1,531	6,611	531	745	1,804	377	1,350
총계	219,290	20,054	136,468	8,311	27,134	2,531	3,112	2,446	6,059	13,175
구성비	100.0	9.1	62.2	3.8	12.4	1.2	1.4	1.1	2.8	6.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각년도,

- 주 1)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 미국, 중국, 기타로 구분·조사하여 세부적으로 파악 불가
 2) 1990-2007년까지 총계 및 구성비 중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의 경우에는 2000년 이전의 국제결혼이 기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실제 총계 및 구성비가 여기에 제시된 것보다 클 수 있음.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중국 조선족의 한국이주 기회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면서 결혼이주의 수가 14,000여명으

로 즐기는 하였어도 아직은 한국 남성이 가장 많이 국제결혼하는 상대이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은 1992년 천여명 수준으로 급증한 다음 거의 15년 동안 그 규모를 비교적 꾸준하게 유지하는데 비해, 중국 조선족 여성은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수가 급증하여 2003년 이후에 이루어진 결혼이 전체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결혼의 거의 60%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 중 2003년 이후에 이루어진 결혼은 34.2%이다.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결혼알선기관이다. 1999년 8월부터 결혼알선기관의 설립이 그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자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이혜경 2005). 동남아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말 2000년대초로, 필리핀 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에 1,358명의 필리핀 여성이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하였으며, 그 이후부터는 500-90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1,5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태국 여성은 2000년부터 270명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 한 것으로 공식 통계가 잡혔으며, 그 후로 200~300명선을 유지하며, 2007년에 500여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몽골 여성도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은 태국 여성과 유사하며 그 규모가 처음 77명에서 2007년 7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동남아 여성들 중 그 수가 가장 급격히 증가한 집단으로 2001년 100여명에서 시작하여 2003년 1,40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05년에 5천8백명, 2006년에는 1만여명, 2007년에 6천여명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하였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게 된 데에는 2001년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역할이 컸으며(한건수 외 2006), 최근 베트남에서 국제결혼과정을 엄격히 규제하자 캄보디아로 국제결혼정보업체들이 사업대상 지역을 옮겨감에 따라 캄보디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결혼이 이루어진 건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 62.2%, 베트남 12.4%, 일본 9.1%, 필리핀 3.8%, 몽골 1.4%, 태국 1.2% 순으로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였다.

2. 결혼이주여성의 국내거주 현황

<표 2>는 2007년 5월 현재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다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출신국가별로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여기에 제시된 여성결혼이민자 수치는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외국인 거주 실태조사 결과로서,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혼인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 여성의 수치를 합산한 결과이다.

<표 2>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11만천 834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조선족 여성이 40%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이 23.9%로서 중국 출신이 전체의 약64%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여성 14.3%, 필리핀 여성 6.1%, 일본 여성 5.4% 순이다.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건수는 필리핀 여성보다 많으나 국내 거주율이 필리핀 여성보다 낮다는 것은 일본 여성들 중에는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일본에 거주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56.6%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 중에도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26.3%로 가장 많다. 출신 국가별로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중국 조선족 중 70.2%가 수도권에 거주하여 수도권 거주율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몽골 여성 60.8%, 중국 한족 60.3%이 수도권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도별 국내거주 현황 (2007. 5 현재)

	계	중국 (조선족)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기타
합 계	111,834 (100.0)	44,731 (100.0)	26,765 (100.0)	6,022 (100.0)	16,034 (100.0)	6,828 (100.0)	1,531 (100.0)	1,476 (100.0)	8,447 (100.0)
서울특별시	29,434 (26.3)	17,574 (39.3)	5,554 (20.8)	1,171 (19.4)	1,356 (8.5)	646 (9.5)	316 (20.6)	159 (10.8)	2,658 (31.5)
경기도	27,625 (24.7)	11,271 (25.2)	8,640 (32.3)	1,191 (19.8)	2,634 (16.4)	1,118 (16.4)	501 (32.7)	414 (28.0)	1,856 (22.0)
인천광역시	6,311 (5.6)	2,529 (5.7)	1,914 (7.2)	255 (4.2)	528 (3.3)	240 (3.5)	115 (7.5)	78 (5.3)	652 (7.7)
부산광역시	5,740 (5.1)	1,809 (4.0)	2,008 (7.5)	215 (3.6)	827 (5.2)	296 (4.3)	31 (2.0)	41 (2.8)	513 (6.1)
대구광역시	3,518 (3.1)	1,312 (2.9)	814 (3.0)	171 (2.8)	818 (5.1)	145 (2.1)	21 (1.4)	28 (1.9)	209 (2.5)
광주광역시	2,316 (2.1)	635 (1.4)	733 (2.7)	126 (2.1)	375 (2.3)	251 (3.7)	33 (2.2)	35 (2.4)	128 (1.5)
대전광역시	2,231 (2.0)	348 (0.8)	934 (3.5)	120 (2.0)	373 (2.3)	132 (1.9)	26 (1.7)	12 (0.8)	286 (3.4)
울산광역시	1,950 (1.7)	669 (1.5)	309 (1.2)	59 (1.0)	665 (4.1)	93 (1.4)	32 (2.1)	15 (1.0)	108 (1.3)
강원도	3,092 (2.8)	929 (2.1)	585 (2.2)	280 (4.6)	566 (3.5)	421 (6.2)	30 (2.0)	70 (4.7)	211 (2.5)
충청북도	3,358 (3.0)	992 (2.2)	602 (2.2)	280 (4.6)	722 (4.5)	369 (5.4)	122 (8.0)	68 (4.6)	203 (2.4)
충청남도	5,088 (4.5)	1,376 (3.1)	877 (3.3)	310 (5.1)	1,148 (7.2)	642 (9.4)	56 (3.7)	196 (13.3)	483 (5.7)
전라북도	4,201 (3.8)	1,143 (2.6)	860 (3.2)	438 (7.3)	812 (5.1)	610 (8.9)	47 (3.1)	58 (3.9)	233 (2.8)
전라남도	4,975 (4.4)	1,085 (2.4)	704 (2.6)	574 (9.5)	1,256 (7.8)	902 (13.2)	85 (5.6)	119 (8.1)	250 (3.0)
경상북도	5,247 (4.7)	1,396 (3.1)	805 (3.0)	364 (6.0)	1,908 (11.9)	406 (5.9)	49 (3.2)	86 (5.8)	233 (2.8)
경상남도	5,884 (5.3)	1,416 (3.2)	1,187 (4.4)	403 (6.7)	1,877 (11.7)	478 (7.0)	64 (4.2)	86 (5.8)	373 (4.4)
제주도	864 (0.8)	247 (0.6)	239 (0.9)	65 (1.1)	169 (1.1)	79 (1.2)	3 (0.2)	11 (0.7)	51 (0.6)
출신국가별 구성비	100.0	40.0	23.9	5.4	14.3	6.1	1.4	1.3	7.6
수도권 거주율	56.6	70.2	60.3	43.4	28.2	29.4	60.8	44.1	61.2

자료: 행정자치부, 2007년도 외국인 거주실태조사 (2007.5)

주)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혼인 귀화자를 합산한 수치임.

반면, 베트남 여성과 필리핀 여성은 다른 국가출신들에 비해 수도권 거주율이 각각 28.2%, 29.4%로 낮은 편이며, 베트남 여성은 경상도(23.6%)에, 필리핀 여성은 전라도(22.1%)에 거주율이 높다.

III.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한국이주 특성과 이민생활 적응

1. 한국이주와 결혼과정의 출신국가별 특성

<표 3>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이주과정이 출신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 가운데 76.4%가 결혼 때문에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여 국제결혼이 한국이주의 주된 동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된 정도는 출신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즉, 베트남(95.2%)과 필리핀(91.0%) 부인들 중에는 처음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결혼인 경우가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몽골 부인들의 경우 그 비율이 57%이고, 처음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결혼한 경우가 28.6%나 된다. 태국 부인들도

<표 3> 외국인 부인의 출신 국가별 한국이주 특성과 한국인과 결혼계기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한국입국 목적(%)	결혼	74.5	67.3	84.0	95.2	91.0	57.1	64.8	76.4
	취업	12.2	14.3	-	2.9	6.0	28.6	18.5	10.9
한국남편 만남경로 (%)	부모형제/친척소개	38.4	16.1	2.8	14.4	7.5	8.9	13.0	19.8
	친구/선후배소개	29.0	27.4	3.8	14.4	14.9	21.4	20.4	21.2
	결혼중개업체 소개	5.5	14.9	.9	57.7	17.9	19.6	3.7	15.4
	종교단체	1.2	.6	86.8	1.9	37.3	14.3	29.6	18.1
	직접 만남	22.0	35.1	5.7	6.7	6.4	32.1	27.8	21.2
한국거주기간(개월) ¹⁾		46.2	36.4	117.9	24.9	56.0	53.9	63.4	53.3

주 1)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 한국거주기간 차이 검증 결과: F=80.3, p<.001

처음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취업(18.5%)인 경우가 결혼(64.8%)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게 된 경로도 베트남 부인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났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서 57.7%인 반면, 중국 한족과 몽골 부인들은 직접 만났다는 사람이 각각 35.1%, 32.1%로 가장 많다. 일본 여성들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통해서 남편을 만났다는 사람이 86.8%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과 태국 여성들 중에서도 종교단체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는 사람이 각각 37.3%, 29.6%로 다른 어떤 경로보다 많았다.²⁾ 부모형제나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는 사람은 중국 조선족 부인들 가운데 가장 많다(38.4%). 친구나 선후배 소개(29.0%)를 포함하면 사회적 연결망을 통하여 한국인 남편을 만난 비율이 중국 조선족 부인의 경우 67%나 된다.

한국거주기간은 1990년대 초반부터 통일교를 통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시작한 일본 여성들이 가장 길어서 평균 117개월(약10년)이고, 그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 여성이 46개월(약3.8년)이다. 중국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기 시작한 역사는 일본 여성과 유사함에도 평균 한국거주기간이 일본 여성에 비해 짧은 이유는 중국 조선족 여성들 중에는 최근에 들어온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이다. 2003년부터 국내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거주기간이 가장 짧아서 평균 25개월(약2년)이다.

<표 4>는 외국인 부인의 결혼 당시 연령과 한국 남편의 연령, 부부 연령차 및 현재 연령을 출신 국가별로 보여준다. 결혼 당시 중국 조선족 부인이 평균 34세로 가장 나이가 많고 베트남 부인이 약22세로 가장 젊으며, 그 밖의 국가 출신들은 27-29세로 한국 여성들의 초혼 연령과 유사하다.³⁾ 한국 남편의 결혼 당시 연령을 보

2) 일본 부인들 중 통일교도가 86.8%이며, 필리핀 부인들 중에도 통일교도가 29.9%로 가톨릭교(37.3%) 다음으로 많으며, 태국 부인들 중에도 통일교도가 18.9%로 불교(52.8%) 다음으로 많다.

3) 한국여성들의 초혼 연령은 2005년 27.7세, 2006년 27.8세이고, 한국남성은 2005년 30.9세, 2006년 30.9세이다. (통계청, “2006년 혼인통계 결과”, 2007).

면, 일본 부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평균 30.2세로 전체 한국 남성의 초혼 연령과 유사할 뿐이고 그 밖의 국가 출신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연령분포는 35세에서 42세 사이로 비교적 연령대가 높다. 중국 조선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이 평균 42세로 가장 나이가 많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으로 평균 39세이다. 결혼 당시 베트남 여성의 연령이 가장 어려서 평균 22세였기 때문에 이들 부부의 연령차는 17년 정도로, 일본 부인 부부를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 부부가 대체로 7-8년 부부 연령차가 있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 부인 부부는 결혼시기와 부부 연령차에서 한국의 일반적인 초혼부부들과 유사하다.

<표 4>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 혼인관련 특성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차이검증
혼인당시 연령(세)	부인	33.7	29.3	28.2	21.6	26.8	28.2	28.2	29.2	F=40.5, p<.001
	남편	41.6	37.6	30.2	38.9	36.0	35.0	35.0	37.6	F=30.9, p<.001
현재연령 (세)	부인	36.9	31.9	39.3	23.5	31.5	31.6	32.8	33.4	F=57.5, p<.001
	남편	44.9	40.2	41.4	40.9	40.7	38.5	39.5	41.2	F=11.4, p<.001
부부연령차 (세)		7.9	8.3	2.1	17.3	9.2	6.8	6.8	8.4	F=69.0, p<.001
부부모두 초혼비율(%)		47.1	63.7	96.2	80.8	88.1	76.8	87.0	69.4	
결혼기간 (년)		3.3	2.6	11.1	2.0	4.7	3.4	4.6	4.2	F=129.4, p<.001

중국 조선족 부인들 중에는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부부 모두가 초혼인 비율은 47.1%로 재혼 비율이 더 높다. ‘중국 조선족 여성+

한국 남성'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가 36%이며, 한국 남성은 초혼이고 중국 조선족 여성은 재혼인 경우가 10.6%이다. 이에 비해 '일본 여성+한국 남성' 부부의 경우 96%가 부부 모두 초혼이며, 베트남 부인의 경우 부부 모두가 초혼인 경우 80.8%, 부인은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인 경우가 19.2%이다. '중국 한족 여성+한국 남성' 부부 중에서도 부부 모두가 재혼인 비율이 19%로 중국 조선족 부인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 부인들보다 높다(일본 .9%-몽골 5.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일본 부인+한국 남편' 부부의 전형적인 모습은 주로 종교기관의 소개로 처음 결혼하여 10년 정도의 결혼생활을 한 부인 30대 후반, 남편 40대 초반의 부부이며, '중국 조선족 부인+한국 남편' 부부는 부인 30대 중반, 남편 40대 초반의 나이에 50%이상이 재혼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평균 3-4년 결혼생활을 한 가정이 평균적인 모습이다. '베트남 부인+한국 남편' 부부는 50%이상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나서 20대 초반 신부와 30대 후반 신랑으로 결혼하고 평균 2년 정도 결혼생활을 한 부부가 전형적인 모습이다.

2. 가족생활적응의 출신국가별 특성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부부관계와 시부모관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부생활 적응은 부부간 문화차이를 느끼는 정도, 부부관계 만족도 및 부부갈등경험과 이혼 고려율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시부모, 친정부모,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는 이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느끼는 정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 부인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문화차이 정도는 출신국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남편과 살면서 문화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이 베트남과 중국 조선족 부인들은 55%인데 비해

필리핀과 일본 부인들은 27-28%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표 5> 참조). 한국 남편과 살면서 문화차이를 느낀다고 응답한 외국인 부인들은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식습관에서 한국 남편과 문화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필리핀(36.4%), 몽골(32.1%), 베트남(30.8%) 부인이 중국 조선족(22.0%), 일본(22.9%) 부인들보다 남편과 식습관 차이를 좀 더 크게 느끼는 편이다. 즐겨 먹는 음식이 다를 뿐 아니라 조리방법, 향신료, 보관방법 등에서 문화차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적응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식탁예법에서의 차이도 문화차이를 느끼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한다(김이선 외, 2006).

<표 5> 외국인 부인의 출신 국가별 부부생활 적응

		중국 조선족 (2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차이 검증
부부간 문화 차이 (%)	거의 안느낌	54.5	39.3	28.6	54.8	27.3	32.1	48.1	43.8	
	식습관	22.0	25.6	22.9	30.8	36.4	32.1	24.1	26.0	
	부부역할기대	7.5	13.7	11.4	5.8	15.2	12.5	9.3	10.1	
부부관계 만족도1) (점)	전반적 만족도	4.07	4.18	3.69	3.82	3.85	3.79	3.83	3.96	F=7.60, p<.001
	가사노동분담	3.68	3.75	3.21	3.57	3.21	3.43	3.54	3.55	F=5.92, p<.001
지난 한 달간 부부싸움 경험률 (%)		27.9	29.2	47.2	18.3	58.2	37.5	44.4	43.7	
부부싸움 제1원인	문화/가치관차이	29.9	29.2		41.1	26.4	28.2			
	자녀교육/행동			22.0						
	언어소통 문제							38.9		
이혼고려율(%)		5.1	3.6	14.2	3.8	10.4	8.9	16.7	7.3	

주 1)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그저 그렇다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으로 측정.

다음으로 문화차이를 많이 느끼는 부분으로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15.2%), 중국 한족(13.7%), 몽골(12.5%), 일본(11.4%) 부인들 순으

로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 부인들은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역할기대 만큼이나 부모부양방식(11.4%), 자녀양육방식(11.4%)에서 남편과 문화차이를 많이 느낀다고 말하고 있으며, 중국 한족 부인은 가사분담방식(11.3%), 몽골 부인은 자녀양육방식(10.7%)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

부부관계 만족도를 보면,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3.9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중국 한족과 조선족 부인의 평균 4점을 넘어 다른 국가출신 부인들보다 만족도가 높으며, 일본 부인은 3.6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 실시한 전국가족조사에서 한국부인(2,638명)의 결혼만족도가 3.59점(여성부 2003)이었고 2005년 조사에서는 한국부인(1,957명)의 결혼만족도가 3.50점인 것에 비하면(여성가족부 2005), 국제 결혼한 외국인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남편과 가사노동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보다 낮는데, 특히 일본 부인과 필리핀 부인이 다른 국가출신 부인들보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불만이 큰 편이다.

부부갈등의 정도를 부부싸움빈도와 이혼고려율을 통하여 살펴보면, 지난 한달 동안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부가 필리핀 부인들 중 5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일본 부인 47.2%, 태국 부인 44.4% 순이다. 지난 한달 간 부부싸움 경험률은 베트남 부인 18.3%로 가장 낮다.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그것이 곧 이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싸움 경험률이 높은 편인 태국 부인(16.7%), 일본 부인(14.2%), 필리핀 부인(10.4%) 순으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비율이 높은 점을 미루어볼 때 부부싸움 빈도와 심각한 이혼 고려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지를 출신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일본 부인은 자녀교육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태국 부인은 언어소통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부인들은 문화와 가치

관 차이를 많이 지적한다(<표 5> 참조).

<표 6>은 외국인 부인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남편, 자녀,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일로 인해 지난 한 해 동안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가장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그 다음이 자녀문제, 시부모 문제, 친정부모 문제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 출신 국가별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일본 부인들이며, 필리핀 부인이 그 다음이다. 일본 부인들은 자녀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자녀 일로 인한 고민이 경제문제로 인한 고민보다 더 크다. 대체로 중국 한족 부인들이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 일로 인한 스트레스도 가장 적게 받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국 한족 부인이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 뿐 아니라 가사노동 부담에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표 6> 외국인 부인의 출신 국가별 가족생활스트레스 지각

지난 1년간...	중국 조선족 (2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차이 검증
배우자 일로 인한 스트레스	1.96	1.92	2.34	2.13	2.37	2.02	2.11	2.07	F=5.19 p<.001
자녀 일로 인한 스트레스	2.10	2.07	2.71	2.37	2.57	2.26	2.53	2.34	F=6.64 p<.001
시부모 일로 인한 스트레스	2.03	2.05	2.30	2.06	2.28	2.11	2.16	2.11	n.s.
친정부모 일로 인한 스트레스 느낌1)(점)	1.85	1.80	2.18	2.29	2.14	2.04	2.04	1.99	F=6.11 p<.001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1)(점)	2.36	2.20	2.62	2.45	2.58	2.45	2.48	2.40	F=3.07 p<.01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

또한 일본 부인이 자녀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결과는 앞의 <표 5>에서 일본 부인이 부부싸움의 원인으로 자녀문제를 들고 있는 것과는 일관되는 결과이다.

<표 7> 외국인 부인의 출신 국가별 시부모관계 적응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시부모 관계 어려움 (%)	별다른 어려움 없음	61.5	43.2	45.5	50.0	21.7	36.2	60.5	48.3
	한국어 의사소통	2.7	31.1	17.0	32.7	43.3	17.0	16.3	20.6
	생활습관이나 방식차이	18.7	12.1	18.2	13.3	13.3	19.1	14.0	15.7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	14.3	9.8	17.0	3.1	20.0	27.7	9.3	13.2

<표 7>은 외국인 부인들이 시부모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어려움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시부모와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중국 조선족(61.5%)과 태국 부인들(60.5%)이 가장 높으며, 필리핀 부인들 중 80%이상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필리핀 부인들 가운데 43%가 시부모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베트남과 한족 부인들도 30%정도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시부모와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몽골 부인들이 가장 높았으며, 약28%가 그렇게 응답하고 있다.

3. 사회생활적응에서의 출신국가별 특성

이번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친구관계, 친교모임이나 단체활동, 종교생활, 이웃관계 및 취업생활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 지를 출신국가별로 비교해 보았다. <표 8>에서 보듯이, 대체로 일본 부인들이 다른 국가출신 부인들보다 사회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인들 중 81%가 종교단체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95%가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있다고 한다.

<표 8>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 친구 및 이웃관계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정기적 참여하는 단체/모임 없음	62.0	69.6	9.4	56.7	55.2	53.6	42.6	53.6	
사교 및 친교모임 참여(%)	25.5	16.7	20.8	19.2	9.0	16.1	29.6	20.5	
종교단체 모임 참여(%)	9.4	6.5	81.1	12.5	25.4	21.4	24.1	21.7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없음	12.9	10.7	4.7	16.3	14.9	16.1	14.8	12.3	
속마음을 터놓는 사람 ¹⁾	배우자	57.3	58.3	56.6	44.2	40.3	44.6	37.0	52.1
	국내 본국인 친구/동료	33.3	35.7	71.7	45.2	40.3	39.3	50.0	42.5
	한국인 이웃/친구	17.3	11.9	29.2	4.8	4.5	16.1	9.3	14.4
한국인 이웃과 교류 ²⁾	아이맡김/집보 기부탁	14.9	6.0	26.3	11.6	13.4	10.7	14.8	13.7
	경조사 참석	32.2	24.5	50.9	20.2	31.4	18.6	33.4	31.2
	생활용품/가사 도구 빌림	23.5	12.5	37.7	13.4	20.9	21.4	18.5	31.1
	급한돈 필요시 거래	9.5	3.0	10.4	6.7	13.4	7.2	7.4	6.5
	어려운 일 의논	21.6	11.3	41.5	16.3	20.9	26.8	16.8	21.4

주 1) 중복응답임.

2) 가끔, 자주 또는 매우 자주하는 경우를 합산한 수치임.

한국에 살고 있는 본국인 친구나 동료에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일본 부인들이 72%로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그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한국인 이웃이나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을 있다는 사람의 비율도 29.2%로 전체 평균 14.4%보다 거의 두 배가량 높다. 또한 일본 부인들은 한국인 이웃과 교류하는 정도가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상당히 높은데, 51%는 한국인 이웃의 경조사에 참석하며, 41%는 어려운 일을 한국인 이웃과 의논하고, 38%는 한국인 이웃으로부터 생활용품이나 가사도구를 빌려 쓰기도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 가운데 한국인 이웃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사람이 5%이하로 가장 적으며, 특

히 베트남 부인들은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도 다른 국가출신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중국 한족 부인들도 한국인 이웃과의 교류는 베트남 부인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다. 다른 한편 중국 조선족이나 한족부인들은 종교단체 모임에 참여율이 가장 저조하며, 중국 조선족 부인들의 경우 사교 및 친교모임 참여율(25.5%)이 태국 부인들(29.6%) 다음으로 높다.

<표 9>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 취업활동과 향후 취업의사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취업률		43.5	29.8	28.3	12.5	16.4	21.4	33.3	30.2
구직 경로 ¹⁾	한국인 친구/ 이웃소개	24.3		31.0	33.3		41.7	22.2	23.5
	본국인 친구/ 이웃소개		28.0	41.4		36.4	16.7	61.1	25.1
	가족/ 친척소개	18.0	22.0		41.7	27.3			18.5
	사설 직업 알선기관						16.7		9.1
	벼룩시장/ 전단지 보고	24.3				18.2	16.7		16.9
취업 동기 ¹⁾	가족의 생계유지	25.2	26.0	30.0	23.1		25.0		24.5
	생활비 보충	30.6	14.0	26.7	30.8	54.5	25.0	44.4	28.6
	미래(노후) 대비	13.5	26.0			27.3		22.2	14.3
	자기발전 위해		14.0	20.0					11.0
	자녀교육비 충당			20.0				11.1	7.8
	본국가족에 송금 위해						16.7		6.5
비경제활동 여성 중 향후취업희망을		71.9	78.6	80.3	74.4	70.8	55.3	71.9	73.5

주 1) 출신국가별로 응답률이 높은 2 또는 3순위까지만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생활을 보면, 중국 조선족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아서 43.5%이며,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은 각각 12.5%, 16.4%만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취업률이 가장 낮다

(<표 9> 참조).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73.5%가 앞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률이 낮은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도 70%이상이 향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장을 얻는 경로를 보면, 친구나 이웃,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를 통하는 경우가 출신 국가를 불문하고 많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국 친구뿐 아니라 한국 친구와 이웃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일본 부인들은 취업을 할 때에도 70%이상이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하며, 태국 부인도 한국인이나 본국 친구나 이웃의 소개를 받아 취업을 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사적인 연결망이 아니라 취업알선기관이나 비록시장이나 전단지 등을 보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중국 조선족, 몽골 부인들 중에 많은 편이다. 외국인 부인이 취업을 하게 된 동기를 물어본 결과, 출신 국적을 불문하고 가족의 생계유지나 생활비 보충을 위해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40~50%를 상회하였으며, 일본 부인 중 20%는 자녀교육비를 벌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표 10>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현재 한국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묻은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 조선족 부인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한족 부인이 19.6%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필리핀과 일본 부인들 중 한국생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10%이하로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현재 한국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 한국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려움 지각

		중국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한국생활 별다른 어려움 없음		22.4	19.6	9.4	11.5	7.5	10.7	13.0	16.0
어려움 있을시, 가장 큰 어려움 ¹⁾ (%)	언어문제		44.4		73.9	59.7	34.0	42.6	34.3
	한국(문화)이해		12.6		7.6	17.7	20.0	17.0	11.6
	경제적 어려움	20.2	12.6	27.1					16.0
	외국인 편견, 차별	14.6							8.2
	자녀 양육(교육)문제			28.1					10.1

주 1) 출신국가별로 응답률이 높은 2 또는 3순위까지만 제시하였음.

베트남 부인의 74%, 필리핀 부인 60%, 중국 한족 부인 44%가 언어문제를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일본 부인들은 자녀양육(교육)문제(28%), 경제적 어려움(27%)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일본 부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앞서의 분석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4. 정책욕구에서의 출신국가별 특성

지금까지 분석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았다. 이번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양한 사회복지지원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지를 알아보았다(<표 11> 참조). 먼저 한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안내,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한국요리강습 등에 대한 서비스 욕구를 물어본 결과, 한국요리

강습에 대한 수요가 67.2%로 가장 높았다. 앞서의 분석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느끼는 문화적 차이가 음식과 식습관의 차이라는 것을 보았듯이, 그리고 이들은 한국에 이주해오자마자 바로 한국가족 속에서 주부로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한 수요가 일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 수요보다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11> 참조).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은 한국요리강습에 대한 서비스 욕구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안내 및 문화체험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 출신들보다 서비스 욕구가 높다. 반면, 한국으로 이주해온 지 평균 10년이 넘는 일본 부인들은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중국 조선족 부인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가장 낮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수요를 가장 적게 느끼는 일본 부인들조차도 한국요리강습은 59%, 한국생활안내 35%, 한국문화체험이나 교육 41%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에서 낮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상담 및 교육지원 및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이나 보호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는지를 물어볼 결과, 한국생활에 도구적인 의미에서 필요한 한국요리나 한국생활안내, 한국문화체험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았다. 여기서도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이 다른 국가출신 부인들보다 서비스 욕구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일본 부인들이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에서는 필요성을 가장 적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과 보호에 대한 서비스지원 욕구는 출신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베트남 부인 중 54%가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일본 부인들 중에는 17%만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앞서의 분석에서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현재는 30%가 일을 하

고 있으나 일을 하고 있는 양는 부인들 중 74%가 향후 일할 생각이 있었다. 이처럼 취업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듯이,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상담과 알선에 대한 욕구는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직 언어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조차도 60~70%가 취업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11> 외국인 부인의 출신국가별 각종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¹⁾

	중국 조선족 (255)	중국 한족 (168)	일본 (106)	베트남 (104)	필리핀 (67)	몽골 (56)	태국 (54)	전체 (810)
한국어 교육	27.0	68.4	53.8	78.8	89.6	75.0	81.4	58.2
한국생활안내	46.3	61.4	34.9	74.0	80.6	57.2	62.9	56.2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52.2	65.4	40.5	75.0	71.6	57.2	64.8	59.1
한국요리 강습	60.4	69.0	58.5	81.7	73.1	66.1	75.9	67.2
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47.8	47.6	31.1	63.5	59.7	51.8	46.3	48.8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	45.1	48.8	31.1	61.5	67.2	53.6	50.0	48.9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47.8	56.5	67.0	71.2	70.1	66.1	59.3	59.0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및 보호	33.7	32.7	17.0	53.8	47.8	44.6	35.2	35.9
직업훈련 및 교육	65.1	72.0	51.9	70.2	68.7	73.2	72.2	66.8
취업상담 및 알선	71.0	74.4	54.8	70.2	64.2	71.4	70.4	68.9
컴퓨터/정보화 교육	55.3	64.9	63.2	69.2	61.2	60.7	77.8	62.5
법률상담 및 지원	47.5	44.0	28.3	58.7	55.2	50.0	48.1	46.5
의료상담 및 지원	53.7	49.4	35.8	62.5	67.2	51.8	51.9	52.5

주 1)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한 수치임.

2) 직업훈련 및 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출신국가별 차이가 유의도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단, 컴퓨터/정보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유의도 .08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그 밖에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 가운데 50~60%가 법률상담이나 의료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서 그 욕구가 가장 높고, 일본 부인들은 20~30%만이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한국생활 지원과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에 대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부인들의 욕구가 고르게 높은 편이며, 한국어 교육과 자녀교육 관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일본 부인의 욕구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 지원 욕구가 가장 낮은 일본 부인조차도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강습, 자녀교육상담, 컴퓨터 교육,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에서는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50%이상이 느끼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맺음말

세계화추세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다민족·다인종사회로 가고 있으며, 그런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어떤 식의 다문화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하는가에 대한 담론도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한국사회학회 2007). 본 연구는 다문화에 대한 우리의 학술적, 실천적, 정책적 논의가 비교적 짧은 기간 중에도 일종의 유행이라고 할 만큼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대중매체에서 자주 소개하는 다문화가정 혹은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으로 시집온 동남아여성들로 집중되면서, “다문화가정=한국농촌으로 시집온 동남아 여성”이라는 일종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가는 경향마저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을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60%이상이 중국 출신이며, 70%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도시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출신 국가에 따라서 한국으로 결혼이주의 역사도 다르며, 국제결혼을 하게 된 동기로 다르다. 통일교의 주선으로 일본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한국으로 결혼이주하였으며, 이어서 중국 조선족, 중

국 한족, 필리핀 여성, 그 다음으로 태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들이 결혼이주해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온 시기도 출신국가에 따라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결혼의 형태도 출신국가별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여성들의 경우 결혼연령, 부부연령차에 있어서 한국인끼리의 일반적인 혼인형태와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며, 단 초혼율이 좀 더 높을 뿐이다. 반면, 중국 조선족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높고, 재혼율도 높은 편이다. 그 밖의 다른 국가출신들은 신부에 비해 신랑의 연령대가 높으며,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20대 초반의 어린 신부들로 30대 중·후반의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부부연령차가 17년정도 나고, 부인은 초혼인데 남편이 재혼이 경우가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많은 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에 따라 한국생활에 익숙한 정도 뿐 아니라 현재 맞고 있는 가족주기에 차이가 있다. 그 때문에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상의 어려움과 정책적 욕구 수준도 차이가 난다. 대체로 일본 부인과 필리핀 부인들이 한국인 남편과 문화차이를 크게 지각하며, 부부관계 만족도도 낮고 부부갈등도 높고 가족생활스트레스도 큰 편이다. 결혼기간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긴 일본 부인들이 부부생활과 가족생활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에서의 가족생활 적응이 단지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일본 부인들은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녀양육과 교육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현재 한국어 소통의 문제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부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면서 앞으로 느끼게 될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생활 적응에 있어서 일본 부인들은 다른 국가출신들보다 당면 어려움을 훨씬 더 적게 호소하고 있으며, 한국인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정도나 사회활동을 하는 정도에서 높은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가장 큰 적응상의 어려움을 느

끼는 집단은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 부인들이며, 따라서 이들은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안내 및 한국문화체험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높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출신국가별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일본 여성들의 적응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이주초기에 경험하는 적응상의 어려움과 10여년 이상 장기거주하면서 경험하게 될 어려움은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를 것이며, 이들 집단이 경험하게 될 가족주기에 따라서 가족이 해결해야할 문제도 문화적 적응과 통합차원에서 함께 연구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에서의 다문화갈등과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 및 정책지원이 보다 근본적인 문화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문화를 지향해야하는 만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할 다문화의 내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촉구된다.

< 참고문헌 >

- 강유진. 1999.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김두섭. 2008. “일본, 중국과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 이주자의 사회연결망과 적응.” 2007년도 포스코 아시아펠로십 연구지원사업 보고서.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령. 1998. “충남거주 조선족여성의 결혼과정과 적응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 김영주. 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김은숙·김승화·김신영. 2006.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 실태조사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민경자. 2003. 『충남 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 박재규·이윤애.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분석: 전북농촌지역 정착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농촌경제』 29(3).
- 박현정. 2004.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법무부. 2007. “체류외국인 100만명 돌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외국인 현황발표.” 법무부 보도자료. 2007.8.24일자.
- 법무부. 2007.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논의 및 ‘07-’08 중점과제 확정.” 법무부 보도자료. 2007.10.25일자.
- 서영주. 2001.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외국인 주부 복지증진을 위한 토론회』. 강원도 여성정책실. 2001.9.
- 석원정. 2004.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 「이주여성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여성과 이주현실》」.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 2004.6.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성지혜. 1996.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난희. 2004. “국제결혼 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 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위함. 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 6.
- 양옥경·김연수·이방현. 2007.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 여성가족부. 2005. 『가족실태조사』.
- 윤형숙. 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2003 이주노동자운동 정책심포지움 자료집 《국경과 인종, 피부색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평등과 연대를 향해》』.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2003. 11.
- 이수자. 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엘리티.” 『한국사회학』 38(2): 189-219.
- 이순형 · 문무경 · 최연실 · 이숙정 · 정하나 · 우현경. 2006.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정착지원방안』. 농림부.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이혜경 · 정기선 · 유명기 · 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258-298.
- 임안나. 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선.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기선 · 김영혜 · 박경은 · 이은아 · 박지혜 · 이승애 · 이지혜.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하이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한건수 외.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학회. 2006.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위원회 용역과제.
- 한국사회학회.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동북아위원회 용역과제.
- 한국여성연구원. 2004. 「국가횡단시대 변화하는 아시아의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18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 한영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전라남도.
- 한주연. 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Constable, N. 2003. "A Transnational Perspective on Divorce and Marriage: Filipina Wives and Workers."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10: 163-180.
- Ehrenreich, B and A.R.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 Piper, N. and M. Roce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ub.
- Sassen, Saskia.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Ehrenreich, B. and A.R. Hochschild. eds. *Global Woman: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New York: Metropolitan Book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s Korean Migration and Their Adjustment of Life in Korea

Chung, Ki-seon
(Gyeonggi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heterogeneity and diversity of marriage migrant women by showing the difference in their Korean migration process, motives of getting married to Korean men, adjustment of life in Korea, etc in term of their country of origin. The trend of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1990 and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rriage migrants were reviewed.

The survey data of 810 marriage migrant women in Gyeonggi province was analyzed. The Japanese and Chinese women are the first marriage migrants who have immigrated to Korea since the early 1990, followed by Filipina, Thai, Mongolian, Vietnamese, and Cambodian women in order, who began to come to Korea since 2000. The 60 percent of marriage migrant women are from China and the 70 percent of them are living in urban areas. The marriage pattern of Japanese women and Korean men is similar to that of Korean couples.

On the other hand, Korean-chinese brides tend to be older than other groups and their marriage to Korean men is more

likely to be remarriage. Vietnamese brides showed the largest age gap with their Korean husbands. The marital satisfaction is the highest among Chinese wives and the lowest among Japanese and Filipina wives. However, Japanese wives tend to keep the best relationship with Korean friends and neighbors. The migrant women from Vietnam, Philippines, and China (Han-chinese) have suffered most due to language, whereas Japanese ones due to child education and economic hardship.

Keywords : International migration,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y,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